

31사단 장병들, 화재 선박 조기 발견 '무사 구조'

이순신여단 레이더기지 김민석 병장·이훈 일병 지난달 초 나로도항 경계 중 포착 '사단장 표창'

“앞으로도 완벽한 해안경계작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군 제31보병사단 장병들이 해안경계작전 중 화재 선박을 조기에 식별, 보고해 승선원 인명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5일 31사단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1시50분께 R/D(레이더)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김민석 병장은 고흥군 나로도항에서 신호 없이 출렁하는 선박을 포착했다.

열영상 관측장비(TOD)를 운용하는 이훈 일병도 같은 선박에서 이상한 '잔상'을 발견, 간부에게 보고했다.

TOD는 열 감지처럼 특정 대상의 온도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데, 평소와 다를 수 없

었던 '진한 검은색'이 보였던 것.

이에 대해 레이더기지 간부들은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경계작전 매뉴얼에 따라 상급부대 및 인접 유관기관(여수해경, 고흥 어선 안전조업국, 나로도 해경파출소)에 상황을 전파했다.

상황을 전파받은 여수해경은 화재 신고 지점인 고흥군 외나로도 서쪽 1.8km 해상으로 출동, 신고 접수 약 1시간 만에 불을 모두 꺾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레이더기지 장병들은 관공선을 안전하게 유도했고, 불을 피해 바다에 뛰어든 선원 2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사단은 이번 상황조치에 대해 화재를 식별하기 어려운 밤에 낮 시간대였음에도 레이더기지 장병들이 평소 실전과 같은 해안경계작전 훈련



육군 제31보병사단은 지난달 초 해안경계작전 중 화재 선박을 조기에 발견, 제때 큰 초기 대응에 나선 김민석 병장(왼쪽)과 이훈 일병의 공로를 인정해 최근 사단장 표창을 수여했다. <육군 제31보병사단 제공>

을 통해 감시장비 활용 능력을 제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31사단은 김 병장과 이 일병의 이 같은 공로를 높이 사 최근 사단장 표창을 수여했다.

김민석 병장은 “빈틈없는 해안 감시와 신속

한 상황 전파로 화재 선박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 인명을 구조할 수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완벽한 해안경계작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인재영기자



서구,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보고회' 개최

광주 서구는 5일 “전날 구청장 주재로 11개 재난협업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겨울철 자연재난 기간을 앞두고 사전에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서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는 겨울철 주요 대책으로 대설·한파 등 특보 발효 시 지역재난안전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상황 관리와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실시간 재난정보 전달과 적설취약구조물 관리 강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관내 주요 간선도로 41.77km 구간의 제설작업을 위한 자재 확보와 장비를 점검하고, 이면도로와 경사로 등 취약지역 106개소에 구청 전 직원 및 동 자생단체 인원을 포함해 2천6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제설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파저감시설인 온열의자 설치 및 한파쉼터 275개소 지정을 통해 한파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난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GS칼텍스, 여수 무인도 해양정화 활동

GS칼텍스는 “최근 2024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까막섬’ 일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OSEAN)과 해양환경보호단 레디(ReDi), (사)섬접업 관계자를 비롯한 GS칼텍스 임직원 봉사대, 시민 다이버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GS칼텍스 퇴직사우회 등으로 구성된 임직원 봉사대와 시민 자원봉사자들은 까막섬 해안가를 돌며 폐부표와 폐그물, 폐가전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관계자는 “두 시간 정도 정화 작업을 한 결과, 약 15kg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며 “GS칼텍스의 후원 아래 지속적인 해양정화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향후 시민 다이버로 구성된 봉사단 12팀을 추가 선발해 전국적인 ‘바다 쓰레기 소탕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여수=김진선기자

안내

▲동인선생강좌 개설=개설과목(2) : 명리사주학·역경해설, 매주 토·일 각 4시간 1년 과정,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업전문가 양성, 11월 초 개강, 문의 062-654-4272.

결혼

▲박정숙씨 장남 백중진(남해화학 전기기사)군, 니중국(오룡철물·공구 대표)·양남희씨 장녀 행오(교차식품 산업연구원 연구개발실 연구기획팀 연구원)양=10일(일) 낮 12시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7 가사디루체웨딩컨벤션 3층 안례홀, (062-710-4000, 010-3610-8703)

▲김원봉·임혜경씨 장남 진호(베스트디지털 제1연구소 연구원)군, 윤사건(연강건설 대표)·허윤숙씨 차녀 지원(MCM korea 디자이너)양=16일(토) 오후 1시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55(김대중컨벤션센터 맞은편)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로즈홀, 010-5467-4150.



도농기원 '전남 4-H 가족 어울림 한마당' 성료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학생4-H회원 및 청년4-H지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4-H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하나가 되는 4-H·성장하는 4-H'를 주제로 진행했다. 오전에 청년 4-H회원들의 트랙터 경진·드론 날리기, 곤포 사일리지를 활용한 예술작품 꾸미기, 체육 경진, 청년 4-H 카오트 토크 콘서트 및 4-H 과제공모전 수상자 발표가 이뤄졌다. 오후엔 4-H가족 어울림 한마당과 학생4-H회원 단체 과제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제5회 전남4-H대상 시상식과 사랑의 쌀 전달, 세계 4-H의 날 기념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다. /김재정기자

'제5회 전남4-H대상' 수상자는 청년4-H회원 부문 이남현(장성)·김동건(장흥)·나광준(나주)·이찬영(함평)·정운환(무안)·강재원(영광)·강미선(구례)·전홍일(신안)씨, 학교 4-H부부 수상자는 함평영화학교, 영산성지고등학교, 목포대학교, 포두중학교, 호남원에고등학교다. 시·군 4-H본부 부문 수상자는 고흥군·나주시·함평군·해남군·구례군·목포시가 차지했다.

또한 자랑스러운 선·후배 상은 흥영신(한국4-H전남본부 전 부회장)씨와 김도영(영산성지고등학교 2학년) 회원이 각각 수상했다.

이와 함께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에서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쌀 1천600kg을 함평군에 전달했다. /김재정기자



보훈부 전남서부지청 '호국영웅 건강케어 살롱' 운영

국가보훈부 전남서부보훈지청은 5일 “전남 목포과학대학교 뷰티미용학과 학생 10명과 함께 고흥 보훈가족 30여명을 대상으로 '호국영웅 건강케어 보보살롱'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목포과학대학교 학생들이 피부관리, 뇌혈행 개선 건강마사지 등 재능기부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국가유공자분들과 직접 소통하며 얘기를 듣는 것이 매우 뜻 깊었고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뿌듯했다”며 “보훈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앞으로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항숙 전남서부보훈지청장은 “보훈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재능기부로 동참해준 목포과학대 교수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면서 “국가유공자의 품격있는 삶을 위해 국민 모두가 보훈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목포=정해선기자

광주 태영명가한의의원-AI페퍼스 '지정병원' 협약

광주 태영명가한의의원이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일 태영명가한의의원에 따르면 최근 AI페퍼스 홈 개막전에서 전의상 태영명가한의의원 대표원장과 AI페퍼스의 장매튜 구단주 및 김동연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4-25시즌 공식지정병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광주 AI페퍼스 선수들 비롯한 임직원 및 관계자 등에 무상 의료서비스와 1:1 맞춤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장매튜 AI페퍼스 구단주는 “부상이 잦은 선수들이 1:1 맞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좋다”며 “추나전문병원으로 유명한 태영명가한의의원과



업무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전의상 태영명가한의의원 대표원장은 “우리 연고지의 배구단인 광주 AI페퍼스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기수희기자



순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마음치유 힐링연수

순천교육지원청은 “최근 전북 순창에서 관내 교육공무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하기 위한 '2024년 교육공무직원 마음치유 힐링연수'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육공무직의 직종 간 이해도를 넓히고 친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했으며, 전북 순창군 강천산 군립공원의 자연환경과 교감을 통해 지친 일상을 치유하고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마음씨(see), 마음 디톡스'는 주제로 숲과 함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편성, 정서적 부담을 완화해 자기 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허동균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았길 바란다”며 “자기 계발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연수 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기자

여주소방,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로 안전 활동

여주소방서는 “최근 열린 '2024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현장에서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했다”고 5일 밝혔다.

“안전한 축제 개최”를 최우선 목표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세심한 안전대책에 소방력을 집중했다.

중점 추진 사항은 ▲주요 행사장 4개소에 소방력(차량 6대·인원 50명)을 배치해 재난 대응 대비 및 행사장 순찰 ▲여수세계박람회장 등 주요 행사장 현지 적응훈련 및 도상훈련 ▲화재·구조·구급상황 초기 대응 및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지휘본부 및 상황실 운영 등이다.

특히 많은 인파가 우려되는 시간대인 불꽃쇼,



라이트드론쇼에 대비해 펌프차, 구급차 전진 배치, 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안전 인력 배치, 현장 상황 교차 점검 등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여수=김진선기자

곡성·진도군 의용소방대聯, 담양군에 고향사랑기부

담양군은 “최근 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곡성·진도군 의용소방대가 담양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며 상생 발전에 뜻을 모았다”고 5일 밝혔다.

곡성·진도군 의용소방대연합회는 각 1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으며, 담양군 의용소방대연합회도 곡성군과 진도군 소방기술 경연대회 시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담양군 의용소방대연합회는 담양장학회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와



함께 안전한 담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